

다니엘서 - 번호 백오십

에스겔 37장 해석과 말세와의 관련성

Jeff Pippenger

2024-03-21

에스겔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묘사한 후, 그는 그 나라가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며 그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그들은 다시는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가증한 것들로나 그들의 어떤 범죄로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죄를 지었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고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가 한 목자 아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내 규례를 따라 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그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그곳에 거주할 것이다. 그곳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방백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것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의 한가운데 두리라. 또 내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때, 열방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23-28.

에스겔 37장은 14만 4천의 인침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두 막대기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때 한 나라가 될 것이며, 그들 위에는 왕이 있을 것이다. 그 한 나라는 말세의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들이 곧 14만 4천이다. 두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이 흩어진 두 시기를 가리킨다. 그 두 막대기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 몸의 "머리"로 규정할 때 "몸"이라고 부른 자들이다. 에스겔은 바울의 "머리"를 "다윗 왕"으로, "몸"을 "한 나라"로 가리킨다.

1856년에 재림주의에 주어진 기별, 곧 그해 히람 에드슨이 발표한 "일곱 때"에 관한 미완의 연재로 대표되는 그 기별에서, 에드슨은 이사야 7장의 육십오 년에 대한 예언을 두 "일곱 때" 기간 모두의 기점을 설정하기 위한 성경적 준거점으로 삼는다. 그 육십오 년의 시간 예언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구절들과 유사한, 수수께끼 같은 맥락 속에 놓여 있다. 만일 분별하는 눈과 깨달을 귀가 있다면, 그 구절에는 매우 놀라운 것이 있다.

이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또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은 깨어져 다시는 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육십오 년간의 예언은 기원전 742년에 시작되었고, 그 육십오 년 가운데 열아홉 해가 지난 기원전 72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 연한이 끝나는 기원전 677년에 므낫세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다. 그 육십오 년은 에스겔의

서술에서 한 막대기로 될 두 나라의 흠어짐이 종결되는 성취들 속에서도 표상되었으며, 그것들은 각각 1798년, 1844년, 1863년을 가리켰다. 1863년에 거절된 그 기별을 식별하게 하는 성구들 안에는 그 예언이 암시적인 표현으로 담겨 있는 특별한 예언적 계시가 있다.

이는 국가의 '머리'는 수도이고, 수도의 '머리'는 왕이라는 계시이다. 이 계시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두 증인을 제시하고, 이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견고히 서지 못하리라"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전체 예언과 계시를 결론짓는다. 왕이 머리이며 머리가 수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견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두 막대기를 합하여 이루어진 에스겔의 나라는, 왕, 곧 머리, 곧 그 나라의 수도를 가지게 되어 있었다. 에스겔서 전체는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의 예언적 성격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인침은 셋째 화에 속한 이슬람의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기간 동안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표상한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기간은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 하던 때, 곧 셋째 천사가 도착한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되었다. 그때 요한은 그 날짜의 쓰라림을 맛보았고, 그 자리에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성소와 군대가 짓밟힌 1,260년의 역사는 제외하라고 들었다. 그 기간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때였기 때문이다.

내가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영원무궁히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으신 이로 맹세하여 이르되, 더 이상 때가 없으리라.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음성의 날들에, 곧 그가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마치리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더라.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작은 책을 내게 주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가져다가 다 먹으라. 그것이 네 배를 쓰게 하리라. 그러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였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그것을 다 먹자마자 내 배는 쓰게 되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또 내게 막대기와 같은 갈대가 주어졌고, 천사가 서서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바깥뜰은 제외하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니, 그들이 사십이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0:5-11:2

1844년 10월 22일에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명령된 성전은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성전이였다. 바깥뜰은 제외되어야 했다. 제단이 있고 또한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성전은 하늘 성소의 성소(거룩한 곳)이다. 바깥뜰에도 제단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외되어야 했으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다른 유일한 제단은 거룩한 곳에 위치한 분향단이다. 1844년에 셋째 천사가 도래했을 때—이는 2001년 9월 11일 인침의 때가 시작될 때 셋째 천사의 도래를 예표한 것이다—그 성전은 오직 두 칸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성소는 바울이 '몸'이라 부른 교회를 상징했고, 지성소는 그 몸의 머리를 상징했다. 성소는 인성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신성을 상징한다. 제단과 그 제단에서 올라 지성소로 들어간 연기는 인성과 신성이 맞닿는 지점을 상징한다. 인류는 오직 믿음으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신실한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는 성소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진설병 상 위의 떡이 이를 상징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되어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진 일곱 가지 등잔대가 이를 상징하듯,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빛을 비추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바로 신성의 임재 앞에 상달될 때 신성과 교통하도록 되어 있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성전의 건축가께서는 그분의 신성의 성전과 결합시키고자 인류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으나, 인류는 반역했다. 2001년 현재, 그분은 다시금 인류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며, 이는 십사만 사천으로 대표된다. 에스겔에 따르면, "다윗 왕"이 그 민족을 다스릴 것이며, 그 민족은 죽어 바싹 마른 라오디게아의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어,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법령 때 기치로 높이 들려지게 된다.

남왕국 유다는 수도 예루살렘이 위치한 나라이며, 나라와 왕과 수도는 '머리'를 표상한다. 참으로 너희가 믿으면 견고히 세움을 받으리라. 북왕국과 남왕국의 관계에서 유다는 '머리'였으니, 그곳에 수도가 있었고, 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성읍이다. 북왕국은 '몸'이었다.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 주께서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을 일으키셨다. 그 대적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는 분열된 이스라엘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세레다의 에브랏 사람으로, 솔로몬의 신하였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라 하는 과부였는데, 바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들었다. 그가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든 까닭은 이러하니,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의 틈을 보수하였음이라. 그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솔로몬은 이 청년이 부지런한 자임을 보고 그를 요셉의 집에 속한 모든 부역의 감독자로 삼았다. 그 무렵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길에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만났는데,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붙들어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그중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찢어 네게 열 지파를 주리라. (그러나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곧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그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 그의 부친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의 손에서 온 왕국을 다 빼앗지는 아니하리니, 나의 종 다윗을 위함이라. 내가 그를 택하였음은 그가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를

지켰기 때문이라. 그의 생전 모든 날 동안 내가 그를 군주로 삼으리라. 그러나 나는 그 왕국을 그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네게 주되, 곧 열 지파를 주리라. 오직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니, 이는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나의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열왕기상 11:26-36.

에스겔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쳤을 때 세워진 그 나라는 '다윗'을 왕으로 둘 것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다. 북방의 열 지파는 몸을 상징하였고, 예루살렘은 머리를 상징하였다.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기원전 677년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고, 이로써 남왕국에 대한 '일곱 때'의 흠어짐이 시작되었다. 그때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그를 격노하게 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유다에 대하여 타오른 그의 크고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옮겨 버린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옮겨 버리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가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였던 그 집을 버리겠다." 열왕기하 23:26, 27.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었고, 그 도시와 그 집은 버림받았지만, 스가라는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이미 칠십 년 동안 분노하신 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환난을 더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로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나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또 측량줄이 예루살렘 위에 퍼지리라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성읍들이 번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널리 퍼지리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뿔 넷이 있었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어 놓은 뿔들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내게 목수 넷을 보이시니라. 내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그가 말씀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유다를 흠어 아무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요; 그러나 이들은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며, 유다 땅을 흠으려고 그 위에 자기들의 뿔을 들어 올린 이방의 뿔들을 내쫓으려 함이니라.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그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더라. 내가 이르되,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이며 그 길이가 얼마인가 보려 함이라 하더라. 보라,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아가매, 다른 천사가 나아가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말하라 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성읍들과 같이 거주하게 되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사방을 둘러 볼 성곽이 될

것이요,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오호라, 나오라,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하늘의 네 바람 같이 너희를 흠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스스로 구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얻은 후에 그가 나를 너희를 약탈한 나라들에게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임이라.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을 향하여 흔들 것이니, 그들이 자기들의 종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라. 그때에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시온의 딸아,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네 한가운데에 거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에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네 한가운데에 거하리니,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의 기업, 곧 분깃으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모든 육체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음이라. 스가랴 1:12-2:13.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는 약속은 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성취되었지만,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에 대해 더 많이 말합니다. 주님은 1844년 10월 22일에 '그의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셨다'. 곧 일어나셔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셨고, 그때 '모든 육체'는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박국 2:20과 일치하게, 반형적 대속죄일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20.

그때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스가랴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손에 측량줄을 든 한 사람이 있더라" 하고 목격한 것이었다. 그때 스가랴가 말하였다. "어디로 가느냐?" 요한이 스가랴에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 보려 함이라." 칠십 년 포로 생활 이후 예루살렘을 재건한 역사와, 1798년에 시작되어 1844년에 셋째 천사가 도착했을 때 반역으로 끝난 역사는, 둘 다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사역을 가리킨다.

남왕국과 예루살렘 성과 다윗 왕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머리'이다. 북왕국은 '몸'을 나타내며, 주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고'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분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가리키신 것이다. 거기에는 라오디게아의 죽은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져 결합되는 일이 포함되며, 이후 그 뼈들이 강대한 군대로 살아나는 일이 뒤따른다.

그 사역은 에스겔 37장에 나타나 있으며,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상징된다. 이는 십사만 사천의 마음과 생각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역을 비유로 보여 준다. 두 막대기 가운데 하나, 오직 하나만이 머리로 지목되며, 당신이 믿고 눈으로 보고 귀로 깨달을 수 있다면, 이는 다른 막대기가 몸을 가리킴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터 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교회의 세움을 설명하기 위해 성전 건축의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스가라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가지'로 그리스도를 언급한다. 그는 이방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 돕는다고 말한다.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또 이사야는 선언한다. '타국인의 자손들이 네 성벽을 쌓으리라.' 스가랴 6:12, 15; 이사야 60:10.

"이 성전의 건축에 관하여 기록하며, 베드로는 말한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에게 나아오면, 너희도 또한 산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 베드로전서 2:4, 5."

유대인과 이방인의 세계라는 채석장에서 사도들은 수고하여, 기초 위에 놓기 위한 돌들을 캐어 내었다.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 되신다.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서로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에베소서 2:19-22.

그리고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썼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내가 터를 놓았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는지 주의하라. 이미 놓인 터,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 이제 누구든지 이 터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인데, 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10-13.

사도들은 확고한 기초, 곧 영원한 반석 위에 건축하였다. 이 기초 위에 그들은 세상에서 채석하여 얻은 돌들을 가져왔다. 건축자들은 방해 없이 일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반대 때문에 그들의 일은 지극히 어려워졌다. 그들은 거짓된 기초 위에 세우고 있던 자들의 편협과 편견과 증오와 맞서 싸워야 했다. 교회의 건축자로 수고하던 많은 이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건축자들에 비길 수 있었는데, 그들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었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지는 자들과 그것을 실어 나르는 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더라.' 느헤미야 4:17. 사도행적, 595-597.